

## 교회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

성경: 행 1:14, 2:46, 4:24, 5:12, 15:25, 롬 15:6

#### I.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한마음 한뜻은 그 영의 하나인 몸의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다 — 엡 4:3-6.

- A.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를 실행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라는 속성, 곧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과 한 몸과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소망에 근거한 것임을 볼 수 있다.
- B.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마음 한뜻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다 — 행 1:14, 2:46.
- C. 하나를 실행할 때 한마음 한뜻이 함께 있게 된다. 하나가 실행될 때 이 하나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 — 행 15:25.
  - 1.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를 강조하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강조된다 — 요 10:30, 17:11, 21-23, 행 1:14, 2:46, 4:24, 15:25.
  - 2.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경계표는 백이십 명 가운데 있는 한마음 한뜻이다 — 행 1:14.
    - a. 그들은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 하였다 — 엡 4:3-6, 행 1:14.
    - b. 사도들과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을 실행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실행했다 — 행 2:46, 4:24, 5:12.
- D. 한마음 한뜻은 하나(eness)의 심장이자 핵심이자 핵이다 — 엡 4:3, 행 4:24, 롬 15:6.
  - 1. 하나는 신체와 같고, 한마음 한뜻은 몸 안에 있는 심장과 같다.
  - 2.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몸속의 심장에 생긴 질병과 같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은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심장’을 지니고서 하나를 유지하고 있다.

#### II. 한마음 한뜻은 우리의 내적 존재, 곧 우리의 생각과 뜻의 조화를 가리킨다 — 행 1:14.

- A.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한마음 한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로 ‘호모튀마돈(homothumadon)’이 사용되었다.
  - 1. 이 단어는 ‘같은’이라는 의미의 ‘호모(homo)’와 ‘생각, 뜻, 목적(혼, 마음)’이라는 의미의 ‘튀모스(thumos)’에서 온 것이며, 사람 존재 전체의 내적 느낌의 조화를 가리킨다.
  - 2. 우리는 우리의 혼과 마음 안팎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존재 전체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한마음 한뜻에 대한 헬라어 단어로 ‘썬포네오(sumphoneo)’가 사용되었다.
  - 1. 이 단어는 ‘조화를 이루다, 혹은 일치하다’를 의미하며, 악기나 음성의 조화로운 소리를 가리킨다.
  - 2.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한마음 한뜻, 혹은 내적인 느낌의 조화는 조화로운 선율과 같다.

3.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율이 된다. 우리는 단지 글로 쓰인 시만이 아니라 소리와 음성과 선율이 있는 시가 된다.

### III.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 행 2:42, 46.

- A. 하나(oneness)의 실행인 한마음 한뜻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 행 2:42.
- B. 사도행전은 당시의 믿는 이들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꾸준히 계속 머물렀다고 말한다.
- C. 사도들은 모든 장소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쳤다 — 고전 4:17, 7:17, 11:16, 14:33하-34.
  1. 우리도 반드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 마 28:19-20.
  2. 신약에는 어떤 가르침이 어느 교회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사상이 없다. 오히려 신약은 모든 교회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동일했다는 것을 계시한다 — 딤후 1:9.

### IV. 한마음 한뜻을 실행할 때,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혼으로 있기를 배워야 한다 — 빌 1:27.

- A.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한 영으로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 가야 한다 — 빌 2:2, 5, 4:2.
- B. 진정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요인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다 — 고전 1:10, 7:25, 40.
  1. 각 지방의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문제는 우리의 의견이다 — 마 16:22-25, 빌 2:2, 4:2.
  2. 주님의 일과 교회생활과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손상을 주는 요인은 우리의 의견이다 — 고전 1:10-13상.
  3. 의견들은 어둠의 표시이다(요 11:9-10).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그 의견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주님은 누군가의 의견에 근거해 결코 행동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며, 우리의 의견에 따른 기도를 포함하여 우리의 의견에 따라서는 결코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 요일 5:14-15.
- C.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온 존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며,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외적으로 말하는 것에서도 하나가 된다 — 롬 15:5-6.
  1. 한 생각과 한입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머리, 곧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직 머리이신 그분께만 한 생각과 한입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하고 머리이신 분의 입으로 말해야 한다 — 골 1:18상, 빌 2:2, 5, 4:2.
  2. 언제든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한입으로 같은 것을 말하게 된다.
  3. 한마음 한뜻, 그리고 한입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려 그분께서 우리 마음과 입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 엡 3:17상, 21.

### V.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 주는 만능열쇠이다 — 행 1:14, 엡 1:3, 롬 15:29.

- A.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교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엡 1:3.
- B. 우리 모두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기 원한다 — 시 133:3.
- C. 교회생활을 실행할 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아래 있게 되는 길을 알아야 한다 — 롬 15:29.
  - 1.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된 상황 위에서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마음 한뜻만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행 2:46.
  - 2.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실행해야 하며, 하나를 실행하는 길은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다 — 행 4:24, 15:25, 롬 15:6.